격의 천공과 미란이 6예 있었다. 대개 비강내 점막과 혼동되는 불균일한 조영증강을 보였으며 두개내 파급이 2예, 부비강외 파급과 전이가 3예 있었고, 주로 악하선 임파절 종대가 7예 있었다. 종양의 크기와 위치에 따라 비부비강의 혼탁과 염증소견이 33예에서 보였다. 면역조직병리학적 소견으로 혈관중심성과 혈관침범을 보인 다형성의 T-cell 위주의 임파종 소견이었다.

**결 론** : 드물게 발생하는 다형성세망증의 CT소견은 비특이적이지만 주로 비강과 비중격에서 다양한 연조직 비후, 주변 골미란과 파괴 및 파급의 형태 또는 특징적인 소견등을 관찰하면 부비강내의 종양감별에 많은 도움을 주고 예후 평가 및 치료 방침결정에 효과적이다.

## 9

## 코의 Angiocentric immunoproliferative lesion(AIL)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이비인후과학교실,* 치료방사선과학교실**

**한지연 · 김재유 · 정수미** · 김민식***
**홍영선 · 윤세철** · 김훈교 · 이경식**
**조승호* · 서병도* · 김동집**

"Angiocentric immunoproliferative lesion"(AIL)은 조직학적으로 angiocentric, polymorphic lymphoreticular infiltration을 특징으로 하는 lethal midline granuloma, polymorphic reticulosis 혹은 lymphomatoid granulomatosis의 대치 명으로 원래는 악성 성향이 불분명하였으나, 많은 임상적, 병리학적 그리고 면역학적 연구를 통하여 악성으로 증명되었고, T-cell lymphoma의 일환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첫 진단시 악성의 특징을 보이지 않은 경우도 대부분 병의 경과중 악성림프종으로 이행되는 양상을 보인다. AIL은 조직학적으로 중양 안면구조에 발생하는 다른 병변과의 감별진단이 어렵고, 특히 조직학적으로 침윤된 large atypical lymphoid cell의 수와 반비례의 양상을 보인다고 보고되고 있어, 조직학적 등급에 따른 적극적인 치료방침의 설정이 필요하다고 보고되고 있다.

연자들은 1980년 1월부터 1995년 9월까지 강남성모병원에서 치료한 코의 AIL 17예를 대상으로 첫 증상의 발현부터 진단까지의 기간, 치료방법 및 치료의 반응정도, 그리고 생존기간등을 후향적으로 연구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관찰할 수 있었다. 전체환자는 17명으로 남자 10명, 여자 7명이었고, 나이 구간은 18~76(중앙값 33)세였으며, 대부분의 환자가 코막힘을 주소로 내원하였고, 첫 임상증상의 발현 일로부터 조직진단까지의 기간은 1~10(중앙값 3)개월이었다. 12명의 환자는 방사선치료를, 5명의 환자는 CHOP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하였다. 전체환자의 경과 관찰기간은 2~119(중앙값 24) 개월이었고, 10명의 환자가 생존하고 있으며, 2명은 사망, 5명은 경과관찰중 손실되었고, 생존기간은 2~119(중앙값 36)개월이었다.

AIL은 불량한 예후를 보이는 질환이므로 앞으로 임상, 조직학적 진단방법의 개선과 조직적 등급에 맞는 적절하고, 적극적인 치료의 실행으로 치료반응 및 생존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10

## 광범위하게 기관주위와 척추전방 부위에 재발된 편평상피세포 유두종 1례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과학교실

**안회영 · 이동엽 · 김광주***
**송 민 · 변재용**

후두 유두종은 후두에 발생하는 가장 흔한 양성종양으로 종양의 위치가 기도 폐쇄를 일으키기 쉬운 위치에 발생하고 치료 후 재발이 많은 종양으로 알려져 있다. 저자들은 현재 45세 남자로 6세때 후두유두종으로 진단되어 기관절개술 및 후두유두종 제거술을 받았고 13세경까지 수차례의 후두유두종 제거술을 받은 기왕력이 있으며 42세때 기도를 폐쇄시킬 정도의 재발된 후두유두종을 기관절개술 및 후두유두종 제거술 4차례 후 45세 때 좌측 기관주위, 척추전방부위, 좌측 흉쇄유돌근 상부 및 경부 후삼각지역에까지 광범위하게 재발된 국소적 이형성을 동반하는 편평상피세포 유두종 1례를 치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